



‘뜨거운 감자’ 부자증세 논쟁

부자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성경에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했다. 그만큼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말일 터이다.

제목부터 눈길을 끄는 ‘부자가 천국 가는 법’은 부자증세를 지칭한 말이다. 이 책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과 전 그리스 총리 게오르기오스 파판드레우가 한 팀이 되고, 전 미국 하원의장 뉴트 킹리치와 ‘경제학의 아버지’ 아서 레퍼가 한 팀이 돼 빈 실전을 담고 있다.

논쟁에 찬성하는 쪽은 부유층 증세를 통해 부의 재분배를 주장하지만 반대쪽은 증세는 투자와 자본 지출을 줄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이들의 논쟁은 한국 사회의 뜨거운 이슈인 부자증세에 관한 다양한 시각과 정책 가이드를 제공해 줄 것이다. <오래된 생각·1만원> /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일, 근면·성실이 미덕인가

동양 사상의 관점에서 ‘일’은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체로 사람은 다른 자리에서 다른 일을 하며 산다.

중국의 심리학 교육학 연구자인 리천이 펴낸 ‘일, 일하다’는 일을 통해 다른 무엇이 아닌 자기 자신이 되는 법을 이야기한다. 저자는 유가, 법가, 불가, 도가 등 동양 철학의 측면에서 우리가 하는 일과 일상을 다룬다. 유가는 중용의 도를 살펴보고 법가는 사람의 마음에 집중할 것을 권유한다. 현대인들은 종종 바쁜 삶이 진정한 삶의 모습이라고 착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동양 사상은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서도 자기 자신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한다. 근면하고 성실한 적극적인 삶도 좋지만, 그 가운데 다른 무엇이 아닌 자기 자신이 되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케이북·1만3000원> /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삶의 열정을 불태운 여인들, 세상 뒤흔든 미인이 되다

미인별곡

이상국 지음



“미인이라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어떤 여인을 아름답다고 이르는가? 어리석은 질문 같지만 쉽게 답하기 어렵다... 아름다운 신체 부위를 다 모아놓는다고 미인이 되는 것도 아니다. 여성의 아름다움을 말할 때 물론 성적 매력을 빼놓을 수 없지만, 인간 본연의 매력 또한 중요하다. 성격과 자부심과 습관, 태어나면서 배운 태도와 행실, 취향과 학식, 그리고 가슴 속에 품은 꿈이 미(美)를 돋우는 것이라고 말하면 과장일까?” (본문 중에서)

미인박명(美人薄命)이라는 말이 있다. 미인은 병약하고 불행해 일찍 죽는다는 말이다. 그러나 진정한 미인은 세상을 흔든다. 그 흔든다는 의미가 다소 불온하지만 동서양의 미인들은 세상을 흔들어 주었다.

클레오파트라, 양귀비, 장녹수의 생이



저자 이상국 씨는 미인은 삶의 아름다움, 열정의 아름다움, 용기의 아름다움, 재능의 아름다움, 치열한 사랑의 아름다움을 포괄한다고 말한다. 사진은 장희빈을 재해석한 sbs 드라마 '장옥정, 사랑에 살다' <왼쪽>와 kbs 드라마 '장희빈'.

증명한다. 그들은 불꽃처럼 살았지만 한 때는 세상을 흔들었다. 정확히 말하면 세상을 쥔 남자들을 흔들었다.

그렇다면 빼어난 미모를 갖추지 않은 여인들은 아무런 ‘축적’을 남기지 않았다는 얘긴가? 그렇지 않다. 엄격한 규율로 여인을 율아매던 시대에도 주체적인 삶을 산 이들이 적지 않았다.

사실 살림, 내조, 현모양처로 집안일은 조선의 여인들은 수동적으로 그려졌다. 그 가부장제가 덧씌운 장막을 걷어내면 그 안에는 남성 못지않은 여인들의 당당한 삶이 자리한다.

시인이자 편집 에디터인 이상국 씨가 펴낸 ‘미인별곡’은 그런 여성들의 삶을 아우른다. 그는 도서관과 서점을 뒤지고 옛시에 등장하는 현장을 답사하면서 스

토리를 쌓았다. 이 과정에서 조선조부터 근대에 이르는 17명의 여인들을 ‘미인’으로 복원시켰다.

저자가 상징하는 미인의 개념은 이렇다. “삶의 아름다움, 열정의 아름다움, 용기의 아름다움, 재능의 아름다움, 치열한 사랑의 아름다움”을 포괄한다.

흥미로운 점은 저자가 “여자를 모른다”고 하지만, 옛 문헌과 기록을 매개로 열일곱 여인과 진하게 ‘뽀’를 탄다는 사실이다. (저자는 아내에게 미안하지만 열일곱 여인과 한바탕씩 정념을 나는 느낌이라고 밝힌다.)

책에서 기술하고 있는 여인들은 모두 네 개의 그룹이다. 첫째는 무용가 최승희, 기생가수 왕수복, 독립투사 남자현, 시인 백석을 사랑한 여인 자아가 그들이 다. 이들은 불확실한 시대를 온몸으로



살아낸 여인들이다. 어려운 위험과 고통을 감수하면서 남자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선택을 강행했다.

김부용과 매장, 자동선, 황진이는 한 시대를 풍미한 기생들이었다. 이들은 흔히 말하는 재색을 겸비한 예인들이었다. 재능 못지않은 열정, 더러는 오만하게 보일 정도의 담대함도 지니고 있었다. 당시 많은 남자들은 이들과의 기이한 연애담을 늘어놓기 일쑤였다. 시사회로 필적이 안 되는 그들이 선택했던 비열한 ‘호모’의 방식이었다.

또한 그들은 조선의 규방을 지키면서도 독자적인 삶을 개척한 이들도다. 김삼의당, 장계향, 임윤지당, 완월 이씨 부인은 자신의 분야에서 일가를 이뤘다. 무능하지만 남편을 사랑하며 시 세계를 개척한 김삼의당, 인기 소설 ‘완월회맹

연’의 작가 이씨 부인, 철학자로 명성을 날린 임윤지당, 퇴계 학통을 일구고 조선 음식조리법을 쓴 장계향에게선 생의 향기가 묻어난다.

마지막 그룹은 앞의 여인들과 다소 변별된다. 마혜는 죽은 남편을 위해 애절한 편지를 무덤에 넣은 순정하기 그지 없는 여인이다. 숙빈 최씨, 인현왕후, 장희빈은 모두 숙종의 아내들이지만, 저자는 어느 편도 들지 않는다. 그럴 수밖에 없었을 상황을 담담하게 그려낸 뿐이다.

언급된 여인들에 대한 저자의 생각은 명확하다. 모두 미인(美人)이라는 것이다. 말 그대로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의미다. 물론 그것은 열정, 용기의 아름다움을 전제한다. <역사의 아침·1만4000원> /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제3차 산업혁명’ 출발점 로봇의 현재와 미래



과학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있다. 미래에는 인간의 일을 대신하는 로봇이 지금보다 훨씬 더 늘어날 것이다. 과학자들은 진화하는 로봇은 단순한 노동뿐 아니라 수술을 하거나 전문화된 업무까지 수행할 것으로 내다본다. 혹자는 로봇이 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제한한 것으로 본다. 이와 달리 로봇공학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면 그런 두려움은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카네기멜런대학의 로봇공학 교수로 재직 중인 일라 레자 누르바흐시가 펴낸 ‘로봇 퓨처’는 ‘제3차 산업혁명’의 출발점이었던 로봇의 현재와 미래를 파고든다.

과학 영화를 보고나서 로봇의 매력에 빠졌다는 저자는 직접 로봇을 제작하기도 한다. 전문 분야를 아우르며 풀어나가는 흥미로운 이야기는 다양한 모습의 로봇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로봇도 초기의 모습과 비교해서 눈에 띄게 달라졌다. 가장 큰 변화는 로봇의 역할인데, 초창

기에는 육체노동을 대신하는 것이 전부였다면 지금은 정신노동까지 담당한다. 지식 영역의 침범은 인간에게 불안감을 갖게 하는데, 일정 부분 로봇공학자들도 인정을 한다.

저자는 로봇 미래는 사생활 의미도 바뀔 수 있다고 본다. 인간은 더 총명한 로봇과 맞닥뜨리고, 새로운 형태의 정체성과 기계 지능을 발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도전은 로봇이 위험을 지닌다는 이유만으로 지양하고 배척하는 데 있지 않다. 로봇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고 사회 공평성을 지향하도록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 <레디 셋·1만5000원> /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군사독재에 맞서 50년 참언론 외길



“저널리즘은 비단 하나의 직업일 뿐만 아니라 가치 있는 삶의 길이다. 사회를 위해 봉사한다는 마음 없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직업이다. 이 절 나는 저널리즘이 어느 직업보다 고결한 직업임을 자위하고 싶다.” 50년 한길 언론인의 삶을 살다 간 박권상 선생의 칼럼집 ‘박권상 언론학’

이 나왔다. 지난해 2월 타계한 뒤, 그와 언론을 함께 하고 토론한 동료들과 그에게서 언론을 배운 후배들이 모여 그가 남긴 2000여 편의 글 가운데 34편의 원고를 묶었다.

책은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닌, 현재 한국 언론이 나아가야 할 길, 그 답을 담고 있다. 현직 저널리스트들에게, ‘무관의 제왕’ 언론인을 꿈꾸는 젊은이들에게 한 인물이 격동의 현대사를 펜으로 어떻게 치열하게 싸워왔는지 보여주고 진정한 저널리스트로서의 삶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도록 등불이 돼 줄 것이다.

<상상나무·2만원> /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파주맛집 5회연속 선정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에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시락

연회장 세미나 가족모임 상견례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게임동 홈플러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www.geumsoojang.com 각종모임은 전통있는 아리랑하우스

특허방수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방수가 2~3년만 가면 된다고요? 20년은 가는데!!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시공과정: 시공전 / 단열베이스코팅시공 → 단열베이스코팅 / 트라이슈머시트시공 → 트라이슈머 시공 → 옥상시공후

결로·곰팡이 단열까지 한번에~!

아트패션시트® 곰팡이 결로 단열시스템

완벽한 3중 단열로 결로, 곰팡이 방지는 기본!
겨울에는 따뜻~ 여름에는 시원~ 탁월한 냉,난방비 절감효과 (20~30%)
새집증후군 예방효과, 명물디자인으로 바꿔주는 리모델링 효과까지!

이파엘지® 특허공법!!

배란다 시공전 시공후

본사, 전속모임, 밸런스 이영후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광주전남대리점 (062)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대리점 T.(061) 284-0485
여수대리점 T.(061) 683-0485
순천대리점 T.(061) 726-0482
광양대리점 T.(061) 795-0485

www.IPALG.co.kr 또는 이파엘지.kr